

## Contents

#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- 아마존, 지난해 미 전자상거래 시장 절반 차지

### 물류정책·산업동향

1.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로테르담의 첫 컨테이너, 목적지 도착완료
2. 월마트, 12억달러 규모 중국 물류 투자 계획 발표

### 공지사항

- 2019 해운·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(2차) 공모

### 명사 스피치

“어떤 제품도 소비자의 손에 쥐어지려면 물류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침체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물류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. 물류 분야에 종사하면 어떤 분야가 뜨고 지는지 비즈니스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 분야임에도 이에 도전하는 청년은 줄고 있어 아쉬움이 많습니다.”

이영중 KCC Transport System 회장  
(2019. 5. 28. / 연합뉴스 인터뷰기사에[서]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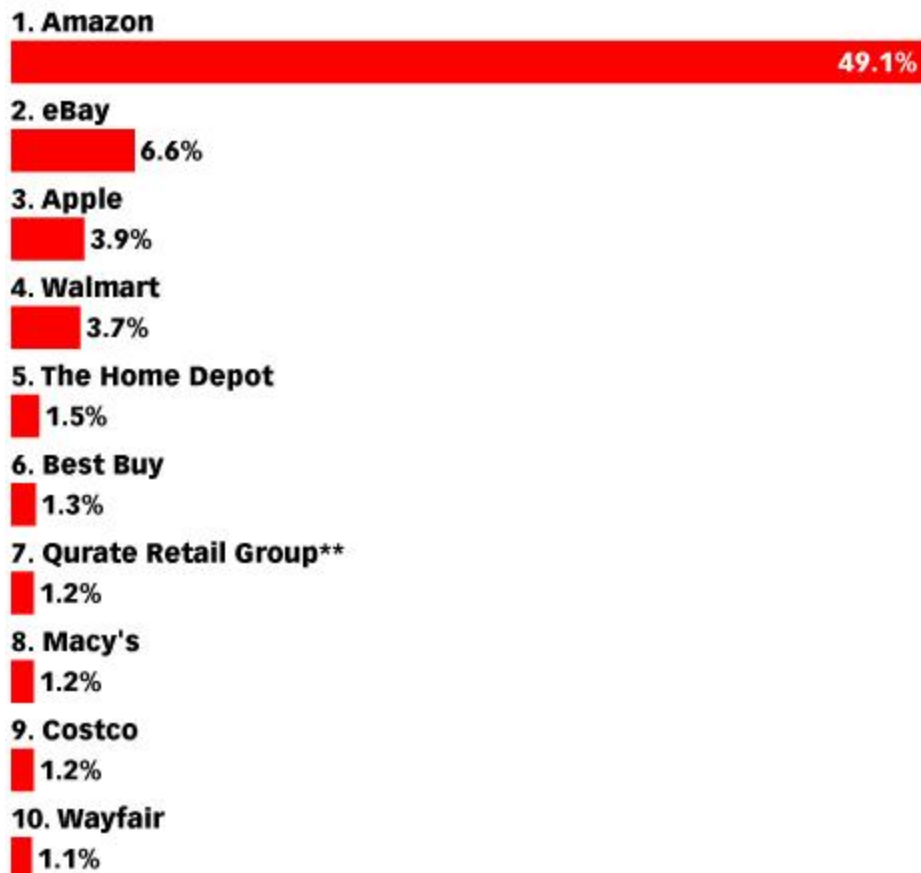




##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

## 아마존, 지난해 미 전자상거래 시장 절반 차지

2018년 미국의 상위 10개 전자상거래 기업



주: eMarketer, July 2018

- 2018년 미국 상위 10개 전자상거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소수의 특정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남
- 지난해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49.1%로 이는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임
  - 이베이(6.6%), 애플(3.9%), 월마트(3.7%) 등이 그 뒤를 따랐지만 1위인 아마존과의 격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

참고자료 : <https://medium.com>, 2019.6.26.

신수용 전문연구원
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

## 물류정책·산업동향

##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로테르담의 첫 컨테이너, 목적지 도착완료

- 로테르담항의 첫 페이퍼리스(paperless)·도어 투 도어(door-to-door) 추적 컨테이너가 한국에서 선적되어 네덜란드의 틸부르크(Tilburg)까지 수송이 완료됨
  - 블록체인 기반의 'DELIVER' 라고 불리는 플랫폼에서 운용되는 이 컨테이너는 즉각적인 금융처리와 운송 루트 상의 완전한 추적이 가능하며 문서화(종이서류) 되지 않은 방식으로 운송되고 있음
  - 개념검증(PoC·Proof of Concept) 수송을 통해 해운·육운·내륙 바지선(inland barge)을 통한 복합운송(multi-modal)의 앤드 투 앤드(end-to-end) 가시성을 검증함
  - 해당 컨테이너는 최근 한국에서 선적되어 로테르담항을 거쳐 틸부르크(Tilburg) 삼성 SDS 창고로 이동되며, 삼성 SDS, 로테르담항 및 ABN AMRO<sup>1)</sup>가 참여하여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운영 가능성을 선보임
- 기술검증단계(Proof of Concept)<sup>2)</sup>에서 'DELIVER'는 다양한 운송모드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다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줌
  - 전체 공급망에 대해 국제해상운송, 연안운송 및 트럭 운송 등 다양한 운송방식에서 가시성 확보가 가능하고<sup>3)</sup> 실시간 정보와 디지털화된 문서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,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송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됨
  - 물리적 플랫폼과 블록체인 플랫폼 간 상호 운용을 통해 기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급망 내 이해 당사자 간 소유권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무역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
  - 3개 파트너사는 기술검증단계 완료 이후 'DELIVER' 프로젝트 다음단계를 위해 보다 확대된 협업 계약을 체결했으며, 이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화주들과 운송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  -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컨테이너 활용의 궁극적 목적은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화물운송 플랫폼을 건설하는 것이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임
- 개념검증 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협력관계인 ABN AMRO, 로테르담항, 삼성 SDS는 DELIVER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 확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
  - 현재까지 지불, 관리, 물리적인 컨테이너 수송에는 많은 당사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전히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으로 된 문서를 사용하고 있어 비효율적임
  - 한 예로 중국에서 로테르담으로 컨테이너가 수송될 때 28개의 관련 당사자들이 발생하고 있음
  - DELIVER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다수 화주들의 서로 다른 교역 구간에 대해 시범 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개방적·독립적인 국제 화물수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임
- 블록체인(Blockchain)은 기업과 기관의 분권형 네트워크에서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데 적합하며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
  - 컨테이너 운송 시 평균 28개의 당사자(party)가 운송에 관여하게 되며 200회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음
  - 대규모 데이터 공유를 통해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으나 데이터 공유에는 신뢰가 필요하며

1) 네덜란드의 금융기관으로 북서부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
2) 특정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구상된 컨셉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지 검증하는 것

3) 물류서비스 제공업체인 Barge Terminal Tilburg은 로테르담항에서 틸부르크 내륙창고까지 블록체인을 탑재한 컨테이너 운송을 담당하였음



중앙으로부터의 통제가 없는 네트워크는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

- 블록체인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수많은 컴퓨터에 안전한 방법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높은 신뢰를 제공할 수 있음
- 블록체인을 통해 해상운송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참가자들 간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

■ 참고자료 : [www.maritime-executive.com](http://www.maritime-executive.com) / World Maritime News, Hellenic shipping News, 2019.7.2.

김보경 연구원

051-797-4674, [kimb@kmi.re.kr](mailto:kimb@kmi.re.kr)

신정훈 연구원

051-797-4695, [jh.gary.shin@kmi.re.kr](mailto:jh.gary.shin@kmi.re.kr)

## 월마트, 12억달러 규모 중국 물류 투자 계획 발표

- 월마트가 중국 물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향후 10년간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임
  - 투자의 주 목적은 신선 식품 공급망 개선에 있으며, 이를 위해 10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개조하거나 신설할 예정
  - 월마트는 지난 3월 1억 4백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광둥성 동관(Dongguan)에 동중국물류센터를 건립했으며, 중국 전체에 건식품 창고(dry warehouse) 8개와 신선식품 창고 11개를 가지고 있음
  - 동중국물류센터는 33,700m<sup>2</sup> 규모로 16만 5000 패키지 이상의 냉장·냉동 보관 시설을 갖추고 있음
- 대규모 투자를 통해 중국에서 신선식품 매출을 확대하고자 함
  - 중국 월마트는 2019년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% 이상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
  - 2018년 기준으로 신선식품 매출은 중국 월마트 전체 매출의 25% 정도인데 대규모 신선식품 물류 투자를 통해 규모를 확대하고 매출 부진을 만회할 계획
  - 2018년 월마트의 신선식품 PB 상품은 전년 대비 30%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물류 투자는 이러한 성장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
- 월마트는 중국 물류 체인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협업을 진행해 왔음
  - 중국 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스마트 소매망(smart retail) 구축을 위해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거대 유통업체 및 기술업체와 유통망 통합을 추진함
  - 또한 중국의 선도 O2O 물류 플랫폼인 JD Daojia와의 협업을 통해 신선식품에 집중한 소형 하이테크 슈퍼마켓을 개설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음
- 미중 무역협정이 투자 계획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됨
  - 월마트의 투자 계획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기간 중 미국-중국 간 관계 개선 조짐이 보임에 따라 발표됐음
  - 향후 미중 간 관계와 무역협정의 향방이 투자 실행에 변수가 될 전망

■ 참고자료 : [www.capitalwatch.com](http://www.capitalwatch.com), 2019.7.1. / [www.reuters.com](http://www.reuters.com), 2019.7.1.

김성기 전문연구원

051-797-4688, [skkim@kmi.re.kr](mailto:skkim@kmi.re.kr)



## 공지사항

## 2019 해운·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(2차) 공모

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우리 해운·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 '화주-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'과 '해운·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'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19년 6월 28일  
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  
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## 1. 신청기간

□ 2019년 6월 28일(금) 09:00 ~ 2019년 7월 19일(금) 17:00까지

## 2. 신청 사업

- 1) 화주-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
- 2) 해운·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

## 3. 신청대상

- 1) 화주-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
- 물류기업 :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
- 화주기업 :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·유통·무역·건설·자원·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- \*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%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
  - \*\*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7조에 따른 “특수관계인”에 해당하거나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“계열회사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


## 2) 해운·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

☐ 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

☐ 재무적 투자자(「은행법」 제8조 따른 은행,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)

\* 단,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·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

☐ 화주(貨主)기업(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)

\* 단,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·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

## 4. 지원내용

### 1) 화주-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사업

☐ 화주-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, 제품 생산·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·분석·설계,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

☐ (지원규모)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%(약 40백만원)까지 보조금(국비)을 지원하며,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

\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에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

\*\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

☐ (컨설팅 수행)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(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)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,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선정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

### 2) 해운·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

☐ '진출사전 지원'과 '현지밀착 지원'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컨설팅 1건당 최대 1억원 범위에서 비용의 70% 차등보조

\* 기업별 실제 지원비율과 지원액은 선정심사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\*\*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,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

☐ (지원조건)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

사 관련 용역비용(계약기준)에 대해서만 지원

\*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(예: 직원의 해외 출장비, 인건비 등)은 인정되지 않음

## 5. 신청방법

- 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(www.kmi.re.kr, 공지사항)에서 사업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고,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

**\* 접수 기간: 2019. 6. 28(금) 09:00 ~ 2019. 7. 19(금) 17:00**

- ☐ 제출방법 :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(전자파일 저장매체(USB) 동봉)

\*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, e-mail 접수 불가

- ☐ 문의처 : 국제물류투자분석·지원센터 (한국해양수산개발원)

\* 주소 : 606-080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(동삼동)

\* 담당 : 최나영환 전문연구원(051-797-4770, chnayoung@kmi.re.kr),  
김동환 연구원(051-797-4913, kdong@kmi.re.kr)

## 6. 제출서류

- (1) 신청서 1부(양식 참조,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)
- (2) 사업제안서 10부(양식 참조, 전자파일도 함께 제출)
- (3)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(양식 참조)
- (4)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(5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- (6) 최근 결산연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
- (7)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1부 (중소물류기업)
- (8)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

\*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는 컨소시엄 참여기업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

## 7. 선정절차 및 방법

- ☐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70점(100점 만점)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

\*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,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

- ☐ 최종 결과발표 (예정) : 2019년 7월 29일(잠정)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



## 8. 유의사항

- ☐ 신청서,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
- ☐ 선정 결과 발표 이후,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·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☐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
- ☐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,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
- ☐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·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 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